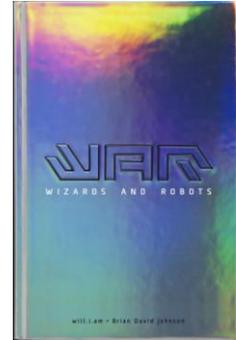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AR: WIZARDS AND ROBOTS
가제 : 전쟁: 마법사와 로봇
저자 : Will.i.am & Brian David Johnson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18년 1월 2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래퍼, 프로듀서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해온 기업가 윌 아이엠과 인텔(Intel)의 미래학자 브라이언 데이빗 존스가 함께 탄생시킨 마법사와 로봇, 평범한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공상과학이나 판타지 소설과 영화에서 이야기의 배경이 과거일 때와 미래일 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힘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명확히 나뉜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대가 과거이거나 현재인 경우 해리포터와 같은 마법사가 주로 등장하고 미래인 경우 터미네이터 같은 인공지능 로봇이 큰 역할을 맡는다. 만약 특별한 기능과 능력을 가진 이 비현실적 존재들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면? 미래학자와, 미국의 유명한 래퍼이자 기업인으로 활동해온 두 저자는 과학과 기술이 일으킬 긍정적인 변화와 가능성, 그 속에 내포된 위험성을 젊은 세대에 알리고 싶다는 같은 마음으로 이 특별한 소설을 함께 완성했다. 마법사가 무서운 힘을 발휘했던 과거와 기술 발달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생활하는 2056년, 그리고 로봇이 인간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그보다 훨씬 더 먼 미래까지 세 가지 시대를 무대로 인간과 마법사, 로봇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만나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펼쳐진다.

1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엄마와 단둘이 사는 고등학생 에이다가 그나마 모든 것을 잊고 몰두할 수 있는 건 기계를 만지는 일이다.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아픈 아버지가 누운 병원을 문턱이 닳도록 오간 시간들은 결국 그 희망이 무너지고 난 뒤 너무 큰 절망으로 에이다를 덮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에이다의 마음 속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서로 애뜻한 마음을 확인했던 남자친구와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로 지낸 프라이 마저 불과 몇 달 전에 전학 온 키트라는 아이에게 뺏기기 일보 직전이다. 에이다에게 유일한 삶의 낙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에 돌아와 집안 일을 돌보는 로봇 캐슬, 로봇공학자인 엄마가 맨 처음 만든 일종의 실패작 킴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변 사람들이 손봐 달라고 부탁한 드론이며 각종 기계를 고쳐주는 것뿐이다.

에이다의 엄마, 새라 루링 박사는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뛰어 넘어 자가 학습과

환경 적응이 가능한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는 일에 2년 넘게 피와 땀을 쏟아 붓고 있다. ‘로빈 챈 린지’라는 이름의 가장 우수한 로봇을 선정하는 명망 있는 대회의 우승을 목표로 킵에 이은 두 번째 로봇에 이어 마침내 세 번째로 완성한 로봇은 마침내 대회 결선에 오르고, 승리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이 연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엄마 곁에서 소소한 작업을 도왔던 에이다는 우승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얼굴 보기도 힘들 만큼 엄마가 바쁘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프라이의 조언처럼 에이다도 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아 주저하던 어느 날, 난데 없는 불청객이 에이다를 찾아오면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겔러라는 이름의 이 낯선 소년은 자신이 과거에서 온 마법사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먼 옛날, 수많은 마법사들이 사람들 몰래 마법의 비밀을 책과 구전으로 조용히 이어가던 시절에 ‘엘더’라는 마법사의 아들로 태어난 겔러는 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중,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다 긴 잠에서 깨어난다. 엘더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마법사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바로 다른 유능한 마법사들과 함께 ‘최초의 로봇’을 찾아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마법의 힘으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멸망 시킬 로봇이 처음 탄생하는 시점으로 가서 그 뿌리를 없애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은 바로 에이다의 엄마, 루킹 박사가 곧 완성할 세 번째 로봇을 노린 지시였다. 이에 마법사들과 함께 에이다가 사는 시대로 떠난 겔러는 사고로 일행과 분리되고 홀로 헤매다 마침내 에이다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로봇을 없애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에이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겔러는 에이다와 엄마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누설하고, 안전한 곳으로 에이다를 피신 시킨다. 그 때, 먼 미래에서 에이다와 최초의 로봇이 제거될 위험을 막기 위해 시간 여행으로 찾아온 로봇까지 등장하면서 겔러와 에이다, 미래에서 온 로봇은 이들을 괴롭히는 적들과 함께 맞선다. 기술이나 인간을 ‘본 짠’ 기계의 힘을 거부하고 마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독단적인 마법사들과 로봇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미래의 로봇들은 인류의 생존을 건 무서운 전쟁을 시작한다. 모든 것을 파괴할 지 모를 이 대립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 에이다 뿐이다. 그리고 에이다가 그 일을 해내려면, 겔러와 미래 로봇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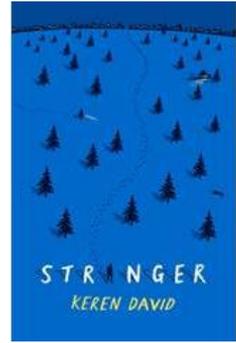
참신한 소재로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호기심을 잡아 끄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윌 아이 엠(Will.i.am)으로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 애덤스(William James Adams)는 그래미 상을 7회 수상한 래퍼이자 프로듀서, 싱어송 라이터이자 기업가다. 현재까지 전 세계 음반 판매량이 3,100만 장에 이르며, 2011년에는 인텔에서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부서의 총 책임자로 일했다.

브라이언 데이빗 존슨(Brian David Johnson)은 미래학자로 인텔(Intel)에서 근무해 왔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분야의 연구와 제품 개발, 공상과학적인 아이디어를 디자인 소재로 활용하는 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과학·상상 연구소 소속 연구자이자 영화 감독,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해 왔다.

제목 : STRANGER
가제 : 낯선 사람
저자 : Keren David
출판사: Atom
발행일: 2018년 4월 5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미스터리와 범죄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우리가 낯선 이들과 아이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 소설가이자 평론가 아만다 크레이그
- * “두 여성의 강력한 목소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는 소설” – 소설가 조안나 나딘

증조할머니가 무려 105세 생일을 맞아 캐나다 온타리오에 사는 모든 주민을 통틀어 최장수 노인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파티를 열기로 하자 메건도 런던에서 날아왔다. 에미 할머니가 한 세기 넘는 세월을 온타리오 애스터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아 서른 명이 넘는 대가족이 형성되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얼마 전 결국 이혼을 결심한 메건의 엄마는 함께 오지 않았고 메건은 긴 여행길 내내 부모님의 관계가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자신과 남동생이 각자 인생을 살기에 바빠서 외면한 사이 부모님은 어떤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생각했다.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할머니의 생일 파티였지만, 메건은 깊은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쩌면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꿈, 리오와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함께 할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이 모두 무너지고 혼자 남으면서 시작된 상처였다. 그런데 그저 복적대는 가족 모임이 되리라 생각했던 이번 여행에서 메건은 그 상처도 잊을 만큼 놀라운, 뜻밖의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증조할머니가 고이 보관해둔 오래된 지역 신문에서 발견한 뉴스가 신호탄이 되었다.

증조할머니 에미가 열여섯 어린 소녀였던 1904년, 애스터의 외진 숲 속에서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진흙과 피에 엉망진창 뒤덮인 사람이 걸어 나온다. 그 기괴한 물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마침 숲 근처 길을 지나던 에미와 단짝 친구 새디였다. 지저분하게 엉킨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고 사이사이에 작은 나뭇가지며 이파리, 먼지가 수북한 꼴이 처음에는 큰 괴물인 줄 알았다. 멍하니 지켜보던 에미와 새디는 그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곳까지 다가가서야 이 별거벗은 존재가 사람이고, 몸 곳곳이 피범벅이며 손가락에서 새빨간 피가 흘러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두 소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온 이 정체 모를 존재는 난데 없이 새디의 손을 덥석 쥐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소스라치게 놀란 새디가 도움을 청하러 부리나케 달려간 사이,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에미는 이상하게도 이 지저분하고 덩치 큰 상대가 무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빨리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부터 든 것이다. 조용했던 애스터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이 소녀의 정체를 두고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지역 신문들

은 ‘야생의 소년’이라는 자극적인 이름까지 붙여 기사를 낸다. 의사인 에미의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진 소년의 이름은 톰. 멀쩡히 말을 할 줄은 알지만 글을 읽거나 쓰는 법은 모르고 나이는 에미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에미의 간청으로 엄마는 톰이 집에서 당분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고,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톰이 전혀 위협적이거나 무서운 아이가 아님을 확신한 에미는 새미와 함께 톰에게 글자도 가르쳐주면서 급속히 친해진다. 에미는 어린 아이처럼 워든 빨리 배우고 익히는 톰에게 서서히 안쓰러움을 넘어 애정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상황은 점점 불안하게 흘러간다. 숲 속에서 죽은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고, 사람들은 톰이 그 숲에서 처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며 어쩌면 톰이 죽은 남자의 살인범일수도 있다고 속덕대기 시작한 것이다. 불안해진 엄마는 톰을 집에서 내보내려 하고, 에미는 혼란스러워진다. 사실 에미가 처음 톰을 만난 그 날, 새미가 사람들을 부르러 간 사이 톰의 손에 작은 권총이 들려 있는 것을 에미는 똑똑히 보았다. 총 버리라는 에미의 단호한 요청에 톰은 순순히 따랐고, 긴 풀숲에 떨어진 총은 구조하러 온 사람들 중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중에 에미가 다시 그 장소를 찾아 총을 찾았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정말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뒤통수가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된 남자를 톰이 쓴 것일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살인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일까?

9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애스터를 찾은 메건은 할머니를 통해 증조할머니가 실제로 겪은 ‘야생의 소년’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는다. 증조할아버지가 그 낯선 소년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에미 할머니를 흠모해 왔다는 것, 결국 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소년은 살인자라는 루머에 시달리다 경찰에 붙들려 갔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아 풀려났다는 것, 하지만 사람들의 두려움과 의심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거세졌고 결국 톰은 마녀가 처형당하듯 불에 타 죽고 말았다는 것까지, 그래서 에미 할머니는 톰의 이야기를 입밖에 내지 않으려 했고, 증조할아버지를 통해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 자신을 집어삼킬 듯 조여오는 고통에 시달리던 메건은 어쩌면 지금 자신이 처한 운명이 에미 할머니가 겪은 비극적인 사랑과 연속 선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사실을 깨달는다. 1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가슴 아픈 사랑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진 에미와 메건의 이야기가 흡입력 있게 펼쳐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렌 데이빗(Keren David)은 저널리스트 겸 인기 YA 작가로 수상작인 『When I Was Joe』로 데뷔하여 뮤지컬로 만들어질 예정인 『Lia's Guide to Winning the Lottery』, 『Cuckoo』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암스테르담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런던으로 돌아와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현재 스코틀랜드와 런던의 여러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